

“고물가에 서민 삶 팍팍한데...원산지 속이면 안 됩니다”

추석 앞두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점검 현장 동행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5000만원 매출 올린 업체 적발 사북경찰관·감시원 투입 선물·제수용품 등 내달 9일까지 점검

“농관원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 나왔습니다. 사업 자득득중, 영업 신고필증 보여주세요.”

18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의 한 마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마트 정육 코너 앞에서 신분증을 밝히며 고기 거래 명세서 등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하자 40대 업주 A씨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업주 A씨는 “무슨 일이세요?”라고 머뭇거렸지만, 검사 결과 기록지를 제시하자 순순히 원산지를 속여 판 사실을 시인했다. 사법경찰관들이 내민 증거자료는 최근 6차례에 걸쳐 이 정육 코너를 방문해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의심되는 소고기 유전자(DNA) 검사 결과였다.

농관원이 조사한 결과, 업주 A씨는 호주산 냉동 목심을 사들여 광양식 소불고기를 만든 뒤, 고객들에게는 ‘한우 불고기’라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 수사를 거치지 전이지만 농관원은 이 업소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대금이 최근 1년간 최소 5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라며 말끝을 흐린다 “다시는 속여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관원 전남지원이 추석 하루 전날인 9월 9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제조 및 가공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표시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물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 전남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36명의 직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3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세상인도 살피되 물량을 대량 거래하는 통신판매업체와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한다.

대형마트와 농축산 도매업체 등이 대량 살포하는

홍보 전단, 온라인쇼핑몰, 흡수핀 방송, 인스타그램 광고 내용도 필수 모니터링 대상이다. 국산인데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판매한다면 단속반원이 손님을 가장해 물건을 사들여 분석을 진행하기도 한다.

원산지 단속은 연중 진행되고 설과 추석 등 명절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는 근

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2021년 거짓 표시(허위표시) 243건, 미표시 153건 등 396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17일 현재 거짓 표시 137건, 미표시 107건 등 266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위반 업체 명단이 공개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단속과 별개로 농관원은 소비자에게 원산지 구별법도 소개했다.

소갈비의 경우 국산은 갈비에 뒷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늘지만, 미국산은 뒷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과 비교하면 갈비뼈가 굵다는 특징이 있다. 대추는 국내산은 향이 진하면서 표면의 색이 연하고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홍삼의 경우 국산은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 색은 황색인데 다리 부분은 적갈색이고, 중국산은 머리가 가늘고 길며 전체가 진갈색을 띤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고물가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부 업소들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18일 오후 광주시 남구의 한 정육점을 찾아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담양·화순 폭염주의보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광주·전남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와 담양, 화순 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 15일 장맛비 영향으로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3일만이다.

기상청은 19일부터 고기압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전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32도로 오르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 나타날

전망이다.

19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광주·전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올 수 있으며 주말인 20일에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오후까지 5~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내리는 비 양이 많지 않아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넘는 더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1~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으니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서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시행

월 20만원씩 12개월

광주 서구가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국도교통부 주관으로 부모와 따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 중이며 자기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자 자산 1억7000만원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원은 심사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복지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22일~9월 8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축산물위생검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도축장의 위생관리와 출하 가족에 대한 도축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도축장에 도입한 신속검사 장비를 활용, 현장에서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를 한다. 식육 미생물검사와 잔류물질 검사 주기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의 하루 평균 소 도축물량은 2020년 44마리, 2021년 48마리였으며 추석 명절 특별대책기간에는 각각 56마리·63마리로 평소보다 27%, 31%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평상시 도축물량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정 내 유통소비의 증가와 축산물 택배 등의 증가로 오히려 도축 물량이 소폭 상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기올타리 특별안전점검

산업부, 22일~내달 12일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올타리’ 감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광주에서 전기올타리 점검을 하다 농장주가 사망하는 등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기올타리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기올타리 뿐 아니라 전기·가스·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가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특히 전기올타리 임의·불법 시공은 외부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제도를 병행한다.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을 한 뒤 안전조치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올타리를 설치할 경우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위법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전기올타리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